



# 상무 불사조, 광주서 2년 더 쫓는다

프로축구단 창단 불발로 퇴출위기에 몰렸던 광주시가 상무와의 2년 계약 연장으로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1일 서울 축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광주시의 상무 조건부 계약 2년 연장에 대해 승인했다. 대신 박광태 광주시장의 프로축구단 창단 공약과 이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제출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날 이사회 결정에 따라 광주시는 신생 팀 창단 약속 불발에 따른 시비 40억원의 공중분해 위기를 일단 모면하게 됐다. 광주시는 지난 2004년 가입비 10억원과 축구발전 기금 30억원 등 총 40억원을 내고 상무를 앞세워 K-리그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애초 올해 연말까지 프로축구단을 창단할 경우 가입금과 발전기금으로 납부한 40억원을 송금 받기로 프로축구연맹과 합의했었으나, 창단 작업이 실패에 그치면서 시비 40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해왔다.

## 프로축구연맹, 광주시 연기 요청 수락 시비 40억원 공중분해 위기 일단 모면

### 강원FC 내달 18일 창단...초대 사장 김원동씨

결국 광주시는 지난달 말 계약 연장이래는 최후의 카드를 제시했고, 2년 안에 창단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퇴출위기에서 벗어났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 강원도민축구단(강원 FC)의 창단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돼 프로 축구 '제15구단'이 탄생했다. 강원FC는 3월 개막할 2009시즌부터 K-리그에 새로운 회원으로 참가한다. 강원FC는 연맹 가입금 10억원과 축구발

전기금 30억원 중 20억원을 조만간 프로연맹에 내고 다음달 18일을 전후해 창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초대 사장에는 김원동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이 선임됐고 공개 모집한 사령탑은 12일 발표된다. 사령탑이 구성되면 신인 드래프트에 나온 선수 중 14명을 우선 지명하는 등 선수단 구성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강원 FC는 앞서 도민주 공모로 60억7천만원(121만 4천374주), 광고 후원금으로 32억 등 총

113억원의 창단 재원을 마련했고 리그 참가 첫해에는 130억원의 운영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연맹은 내년 시즌 15개 구단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정규리그를 팀당 28경기씩 진행하고, 22일 시작되는 K-리그 6강 플레이오프에는 외국인 주심이 휘슬을 불도록 해 판정 불만을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무용론'이 제기됐던 갑대회 폐지여부와 팀 당 경기 수에 대한 사안은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갑대회를 제패한 수원 삼성에는 내년 2월 개최될 범태평양(팬퍼시픽)대회 출전권을 주기로 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이 내년 챔피언스 리그부터 외국인 선수 1명에 한해 외국인 선수로 인정하지 않는 '아시아쿼터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용병 보유한 3명에 한 명을 추가하는 '3+1'안의 실시 여부도 다음 이사회 때 확정하기로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연합뉴스

# “올 최악의 시즌”

## 요미우리 이승엽 귀국 “WBC 불참 팀위해 전력”

11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승엽(32·요미우리 자이언츠)은 올 시즌을 “아구 인생 최악의 한 해”라고 말했다.

올해 일본프로야구 정규리그에서 타율 0.248과 홈런 8개에 그친 이승엽은 한국의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을 이끌었지만 포스트시즌인 일본시리즈에서 18타수2안타로 부진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그는 또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불참 의사를 재차 확인하며 “지난 2년간(일본 정규리그에 대비한) 준비가 부족했다. 남은 2년은 팀(요미우리)을 위해 뛰고 싶다”고 설명했다.

- 일본시리즈를 마무리한 느낌은. ▲ 좋지 않다. 팀이 졌고 진 원인이 나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기대해준 팬들에게 죄송하다. 준비가 부족했고 상대방에게 농락당했다.
- WBC 불참 입장에겐 변함이 없다. ▲ 나가지 않았다. 4년 계약 가운데 2년만 지났는데 2년 동안 수술을 하고 국제 대회에 참가하면서 다음 시즌을 들어가는 데 준비가 부족했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뛰어야 했지만 이번에 우리 팀도 졌고 남은 2년 동안 팀을 위해 뛰고 싶다. 내 실력으로 나가면 더 망신이다. 1루수로 잘하는 후배가 많아 내가 없어도 공백은 없을 거라고 본다. 김인식 감독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다.
- 1년을 보낸 감회는. ▲ 야구 인생 최악의 한 해였고 정말 되돌아볼 수 없는 한 해였다. 금메달은 영원히 잊을 수 없지만 짧은 기간이었다. 하지만 2군에 있던 시간이 길었고 성적도 좋지 않았다. 생각도 하기 싫은 한 해였다. 기대하고 도와준 분들에게 면목이 없다.
- 올해 부진 원인은. ▲ 말을 해봤자 스트레스고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내 탓이다. 몸 상태를 100%로 끌어올리지 못했고 유지하지 못했다. -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 윈슨 근력을 보완해야 한다. 보호대를 차고 타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감각이 다르다. 통증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게 우선이다. /연합뉴스



일본 프로야구에서 최악의 한 해를 보낸 이승엽이 11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축구단 창단 2년 연장’ 광주시 과제

# 지역기업 구단...시민구단... 市 확실한 입장 정리 우선

광주시가 상무와의 2년 계약 연장으로 일단 급한 불을 껐지만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한 길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02년 월드컵 열기에 고취된 광주시는 지난 2004년 40억원의 시비를 들여 K-리그 정회원의 자격을 얻었다. 당시 2008년말까지 프로축구팀을 창단할 경우 40억원을 송금받는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창단 시간 마감 해인 올해 3월이 임박하자 프로축구단창단추진위원회(이하 TF팀)가 꾸려져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K-리그 정회원의 자격을 얻은 뒤 참여 기업 모집과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한 시민공모 추진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진척은 거의 없었다. 상무 연고의 마지막 해로 예정됐던 올해에도 광주시는 하계 U대회 유치에 집중하면서 축구단 창단은 건 건너 불구경하는 형국이었다.

시한 마감은 눈 앞에 두고 꾸러진 TF팀은 ‘지역연고 모기업 구단’에 초점을 맞추고 창단 작업을 시작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 광주시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지역 특성상 해당 기업을 찾지 못했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5~10개 기업이 합류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시민구단’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불발에 그쳤다.

실업축구 울산 현대미포조선이 시민구단 창단 참가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광주시는 미포

조선이 주도적으로 팀을 운영해 줄 것을 바라며 미포조선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었다. 반면 강원 FC는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도민주 공모(60억7천만원)와 광고 후원금등으로 113억원의 창단 재원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열세로 K-리그에 뛰어들이지만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한 시민 공청회나 세미나 등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하지 않았다. 시민들로부터 프로축구의 열기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한 광주시는 프로축구단 창단 원동력을 스스로 무산시킨 셈이다.

설상가상 매년 선수가 바뀌는 군인팀의 한계까지 겹쳐 상무는 4년 연속 꼴찌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올 시즌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찾은 평균관중수는 9천895명. 전체 14개 구단 중 11위의 성적이고 K-리그 평균 관중수인 1만2천901명에 밀린다. ‘벨라토르’등 광주 상무 서포터즈도 상무의 광주연고 K-리그 참가 연장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앞으로의 2년은 이보다 더 암울할 전망이다.

2년의 시간을 벌었지만 프로축구단 창단까지 갈 길은 멀다. 창단에 대한 광주시의 확실한 입장정리와 방향 설정이 시급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서장훈, 그저 바라볼 수 밖에 11일 전북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전주 KCC-인양 KT&G의 경기에서 KT&G 워너(오른쪽)가 덩크슛을 성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허정무호 사우디 원정길...“꼭 이기고 오겠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11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통과에 분수령이 될 열혈여의 중동 원정길에 올랐다.

허 감독과 태극전사 25명 중 해외파 5명을 뺀 20명은 이날 밤 11시55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카타르로 떠났다. 대표팀은 15일 새벽 1시(이하 한국시각) 카타르와 평가전을 가진 뒤 20일 오전 1시35분 사우디 아라비아와 월드컵 최종예선 3차전을 치른다.

최종예선 1차전이었던 북한전 1-1 무승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2차전 4-1 대승에 이어 세 번째 만나는 상대인 사우디는 한국이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얻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난적’이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 1989년 이탈리아월드컵 예선 때 2-0 승리를 거둔 후 19년 동안 6차례 대결에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채 3무3패만을 기록해 ‘사우디 징크스’에 시달렸다. 특히 원정에서는 1980년 1월30일 친선경기에서 1-0으로 이긴 뒤 무려 28년간 3경기 연속 무승(1무2패) 행진 중이다. 통산 상대전적도 3승6무5패로 뒤져 있다. 한국은 최종예선 B조에서 1승1무로 동등인 이란과 사우디에 골득실(한국 +3, 이란·사우디아라비아 각 +1)에서 앞서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3차전 원정에서 진다면 본선직행 티켓을 장담하기 어렵다. /연합뉴스

## 사우디 축구 주전 알 카타니 부상...한국전 출전 불투명

### 남아공월드컵 前 최종 예선

한국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3차전(20일 새벽 1시 35분·이하 한국시간)을 치를 사우디아라비아의 키프레어 야세르 알 카타니(26·알 힐랄)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알 카타니는 최근 리야드에서 열린 태국과 친선경기(1-0 승)를 앞두고 대표팀 훈련 중 사타구니를 다쳐 독일로 건너가 검사를

받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AFC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알 카타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간판 스트라이커. 2005년 3월 탐방에서 열린 2006 독일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0-2 패)에서는 썩어떨어질 듯이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역대 전적 3승6무5패로 열세다. /연합뉴스

## ‘세이부 주전 9명 불참’ SK에 희소식



아시아 4개국 프로야구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첫 우승에 도전하는 SK 와이번스가 호재를 맞았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호치’는 11일 인터넷판에서 일본 챔피언 세이부 라이온스가 주전 9명을 뺀 채 아시아시리즈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주전 유격수 나카지마 히로유키, 포수 호스카와 도오루 등이 각각 왼쪽 윗구리와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못 나선다

## “WBC 코치에 현역감독 중 1명은 포함돼야”

### 김인식 감독, 수정 제안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코치진 구성이 표류 중인 가운데 현역 감독 승선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는 11일 “아시아시리즈 참가차 일본에 갈 하일성 KBO 사무총장과 김인식 WBC 대표팀 감독이 코치진 구성을 놓고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다. 코칭스태프 구성이 원점에서 새로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떠돌아다니던 2대 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WBC대표팀 지휘봉을 잡게 된 김인식 감독은 대표팀 구성과 훈련 일정 등 향후 로드맵을 그려려면 자신을 도와줄 코치진이 빨리 결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김 감독은 김재박 LG, 조병현 KIA, 김시진 히어로즈 감독 등 현역 사령탑 3명과 류중일 삼성 2군 코치, 김성환 전 KIA, 이

순철 전 LG 감독 등 총 6명을 WBC 코칭스태프로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8개 구단 단장들은 전담 대표팀 차출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으나 김 감독이 요구한 코치진 구성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했다. 특히 LG와 KIA는 최근 성적이 좋지 않아 감독 차출에 반대한 대신 소속팀 코치는 보낼 수 있다는 태도다. 김 감독은 6명의 코치를 WBC 대표팀 감독 수락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일부 구단의 반대가 완강하자 뜻을 굽혀 ‘현역 감독을 모두 데려갈 수 없다면 3명 중 1명 만이라도 꼭 코치진에 포함하고 싶다’는 뜻을 넘기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감독이 원하는 인사가 구체적으로 거명되지 않았으나 WBC에 투구수 제한이 있고 불펜 운용에 따라 성적이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김시진 감독이 투수 코치로 합류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연합뉴스